"아픈 사람들 이해하는 의료인 되어 지역사랑 보답"



(17) 완도 금일중 3학년 노태희 양

'글로벌문화체험캠프'서 외국어 분야 두각 고향에 남아 특기 키우며 공부해 나갈 것 전남도 • 도민들 응원 큰 힘…더 힘내야죠

"다들 도시로 나가지만, 전 완도 평일도 (금일읍)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계속 능 력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가끔 외국에 나가 해외 트렌드 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노태희(15·완도 금일중 3년) 양은 전복 양식을 하는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 금일고 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이다. 도시로 나가 경 쟁하는 대신 섬에 남아 특기를 키우고, 부 족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보완해볼 생각이 다.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글로벌문화체 험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노양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분야에서 소질을 인정받고

"지역 인재로 불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 이 많고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지 역 인재에 걸맞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영어를 배 우고 있는 노양이 가장 아쉬운 점은 금일읍 에는 바이올린, 피아노, 우쿨렐레 등 악기 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유튜 브 등을 통해 배움을 시도하고 있지만, 직 접 배우는 것에 비해 속도가 더디다.

"외진 곳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면서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

고 싶다"는 그녀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 북쪽의 시 계탑 빅벤(Big Ben)에 가보는 것이다. 가 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장소로 빅벤을 꼽 았다.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견문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픈 사람 들의 심적, 신체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 해줄수 있는 친근한 의료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 사하고 싶습니다."

노양은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 각은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 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운 뒤에 결정 해도 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미래를 위해 소중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저를 위한 전남도와 도민들의 응원이 제



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 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에 급식키트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 원센터가 청소년들에게 급식키트를 지원했다. 이번 급식키트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 제공〉

청주시의회, 북구의회에 수해 구호물품 기탁



청주시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컵라면, 화장지 등)을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 식)에 기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청주시를 도와준 북구의회 에 감사를 표하고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북구의회는 당시 청주시 오송읍을 찾 아 축사 농가의 침수 폐기물, 토사 등을 정비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수해가 심한 이재민 31세대(5개 동)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북구 의회에서 자체 마련한 위문품도 함께 전해진다.

표범식 북구의장은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청주시의회에 서 보내온 따뜻한 도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구의회와 청주시의회가 마련한 구호 물품이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잘 전달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길잃은 치매 할머니 가족에 인도한 광산우체국 최현철 집배원



TV프로그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팔도밥상 스페셜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KBS 네트워크 특선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TV쇼 진품명품(재)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30 전국을 달린다

5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6시 내고향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30 기막힌 유산

KBS 뉴스 9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KBS 스포츠 중계석

(2019-2020 ABB FIA

포뮬러E 챔피언십〉

KBS 뉴스라인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거북이 늬우스

50 안녕 우리말(재)

55 UHD 숨터(재)

KBS 뉴스 2

3

8

11

KBS 뉴스 12

KBS 뉴스 광장

25 아침마당

45 KBS 뉴스

22일

KBS2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KBS 아침 뉴스타임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00 좀비탐정(재)

40 투페이스(재)

00 KBS 뉴스타임

50 통합뉴스룸 ET

30 2TV 생생정보

50 비밀의 남자

30 노래가 좋아

30 좀비탐정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00 스포츠 하이라이트

25 통합뉴스룸 ET(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TV 유치원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내 할머니 같아 잠시 보살펴 드린 것 뿐…할일을 한 것"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50 생방송 오늘 아침

30 930 MBC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뻤을 때

45 기분 좋은 날

00 12 MBC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20 이 맛에 산다(재)

00 5 MBC 뉴스

15 오매! 전라도

15 찬란한 내 인생

20 공부가 머니?

40 PD수첩

35 100분 토론

50 MBC 뉴스데스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5 공부가 머니? 스페셜

50 뽀뽀뽀 친구친구

20 따라락 따라락 뚝딱맨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찬란한 내 인생(재)

광주광산우체국(국장 박춘원)소속 집배 원이 배달업무 중 길가에서 우왕좌왕하는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처럼 돌본 사연이 뒤 늦게 알려졌다.

광주광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최현철 (31)씨는 지난 8월말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역에서 배달을 하던 중, 치매 할머니 A씨 를 발견했다. A씨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 다.

최씨는 A씨의 목걸이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불안해하는 A 씨를 진정시키고자 대화를 이어가고, 빵을 사 주기도 했다.

A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길 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제 할머 니 같아 잠시 보살펴 드린 것 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사례도 정중히 거절했다 고 한다.

가족들은 "최씨의 연락을 받고 무사히 할 머니를 찾았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아직 따뜻한 인정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며 감 사를 전했다.

최씨는 "우리사회에 작지만 따뜻한 정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 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BS/KBC

00 모닝와이드 1~2부

35 모닝와이드 3부

35 엄마가 바람났다

10 좋은 아침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00 SBS 12뉴스

50 톡톡 보험설계

00 뉴스브리핑

00 테마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최강 1교시

5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10 불타는 청춘

30 나이트 라인

35 KBC 저녁뉴스

50 kbc특집다큐멘터리

내 생애 가장 빛나는 날,

나는 여수로 간다(재)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55 닥터 365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방수 원단 '고어텍스' 개발 로버트 고어 별세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08:30 뿌로로 동화나리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30 명탐정 피트

10: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9:00 픽시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히어로 슈퍼잭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수(防 水) 원단 '고어텍스'의 개발자 로버트 고어가 지난 17일(현지시간) 83세 일기로 세상을 떠 났다.

땀은 밖으로 배출하고 눈・비의 침투를 막 는 고어텍스는 등산복과 신발 등 수많은 아 웃도어용품에 적용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심장 패치와 같은 의료기기 나 우주복, 기타 줄 등을 제조하는 데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연합뉴스

EBS₁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4:45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15:45 머털도사

16:1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30 딩동댕 유치원(재)

16:50 해요와 해요

17:00 EBS 뉴스

17:20 야옹멍멍 귀여워2

17:30 로빈 후드

17:45 히어로 써클 18:00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19:30 자이언트 펭TV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19:45 극한직업 스페셜

〈아시아 핫 플레이스

-신에게 가는 길, 칭짱 열차〉

21:30 한국기행

〈동쪽으로 튀어 2부

읍천 해녀들의 바다 인생〉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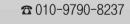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23:50 클래스 e

24:20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6일 戊辰)





36년생 평온하게 진행 될 것이니 우려할 바는 아니다. 48년 생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60년생 일 상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 했던 바의 역할 이 보일 것이다. 72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84년생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바랄 것이 없다. 96년생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27,99



丑

37년생 먼저 논의되어야만 비난을 받지 않는 법이다. 49년 생 실용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만 생산성을 도모할 것이 다. 61년생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쉬리라. 73년생 자기 처 지를 먼저 생각하고 임하라. 85년생 마음만으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97년생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26,72



寅

3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50년생 속단은 금물이 다. 62년생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나 해소될 수다. 74년생 방심한다면 실수할 수 있다. 86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남의 원성을 사게 된다. 98년생 현장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 은 미련을 남길 수밖에 없는 판국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9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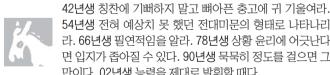
卯

39년생 남의 일에 나서면 무조건 손해이다. 51년생 항심으 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다. 63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75년생 순천 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니라. 87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99년생 오래 계속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01,82

40년생 힘들여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잘 될 것이다. 52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다. 64년생 오직 통일 된 원 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76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눈요기에 그쳐야지 덥석 물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00년생 안 되

辰

41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3년 마련하는 것이 옳다. 89년생 희망적이니라. 01년생 첨예한



라. 66년생 필연적임을 알라. 78년생 상황 윤리에 어긋난다 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90년생 묵묵히 정도를 걸으면 그 만이다. 02년생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6, 91 31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43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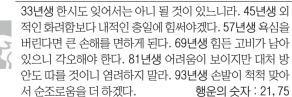
42년생 칭찬에 기뻐하지 말고 뼈아픈 충고에 귀 기울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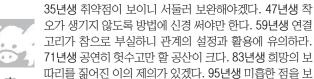
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67년생 주체성 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79년생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느니라. 91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행운의 숫자 : 29,93 32년생 절제 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4년생 다양



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56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 다. 68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80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92년생 전체를 자세 히 들여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0, 54



34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46년 생 기묘한 성국 앞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58년생 기발한 요 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나을 것이다. 70년생 옥석을 가 려내지 못하고 함께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82년생 같은 내 용이라 하더라도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 94년생 변동의 폭이 매우 넓다. 행운의 숫자: 37,65





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한다. 65년 생 상호 공존하는 성국을 만들어 가자. 77년생 미리 대안을 논란에 휩싸일 수다.

행운의 숫자: 10,53

행운의 숫자: 45,59



酉

완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07,95

